

## 6장 폴 클레의 ‘새로운 천사’에 관한 벤야민의 해석

◆1교시: 폴 클레의 “ 새로운 천사 ”에 관한 벤야민의 해석

▲ 벤야민에게 있어서 폴 클레의 그림

자- 이제 그림. 벤야민의 그 유명한 폴 클레에 문제를 언급하도록 하죠. 그리고 9장에 들어가면 그림 한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폴 클레의 그림이죠. 새로운 천사. 앙엘 스 노부스 라고 부르는데요. 희랍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클레 P. Klee가 그린 새로운 천사 Angelus Novus 라고 불리우는 그림이 이 그림의 천사는 마치 그가 응시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금방이라도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묘사되어 있다. 그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고, 그의 입은 열려 있으며 또 그의 날개는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앞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쉬임 없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과국을 바라보고 있다. 천사는 머물러 있고 싶어 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 일깨우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는 이를 다시 결합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국으로부터는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또 그 폭풍은 그의 날개를 꼼작달작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천사는 그의 날개를 더 이상 접을 수 없다.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벤야민의 역사비판이 진보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gress” 자. 뭐 읽으셔서 대충 알겠지만 이 그림 설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폴 클레의 이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은 벤야민이 우연히 소장하게 된 이후로 가는 곳마다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항상 응시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 벤야민에게 폴 클레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거울. 사유의 거울. 그니까 끊임없이 생각들이 많이 머리 속에서 주유하고 있을 때, 그 주유하는 생각들을 이제 어떤 그런 소실점으로서 그림이 그림을 응시할 때, 그림을 이해하는 방식이 자기 머리 속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파편화된 생각들을 다시 하나의 그런 형상으로 이제 세규어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고 끊임없이 응시하고

그 응시된 것을 통해서 다시 자기 생각을 점검하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또 그림을 응시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림과 일종의 사유의 대화를하면서 말하자면 벤야민의 모든 사유

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이 폴 클레의 그림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또 특유의 벤야민적 논리를 빌리면 바로 폴 클레의 그림을 이해하는 방식이 자기의 사유를 정돈하는 또한 방식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벤야민이 역사에 그림의 이름이 앙젤루스 루보스 그래 가지고 이제 뉴엔젤이다. 그래서 새로운 천사라고 폴 클레는 붙였지만 새로운 천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벤야민은 역사의 천사의 말로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transformation시켜 가지고 이 그림을 통해서 바로 그림의 상황을 자신이 처해있는 어떤 역사적 상황과 비교해서 애길 하고 그것을 바로 글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지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픈 천사

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그림에 대해서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의 천사는. 천사가 하나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날아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죠. 떠있는 겁니다. 그리고 떠 있는데 지금 이 천사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돌아서 있는 겁니다. 원래 이쪽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뒤로 돌아서서 뒤를 바라보는 과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고 당연히 물론 유데카발라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대학시절부터 알게 된 이후로 벤야민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던 신학적 영향을 주었던 그런 친구인데 이 게트솔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글을 하나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는데. 나의 날개를 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뭘니까. 천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 면 천사가 지상 위로 내려왔다가 하늘 위로 떠오르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날개는 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는 기꺼이 되돌아가고 싶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영원히 머물더라도 나는 행복을 갖지 못할 테니까.

#### 게르쉴 솔렘 <천사의 인사>

- 나의 날개는 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는 기꺼이 되돌아가고 싶었다. 하늘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지상 위로 내려오고 싶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하늘로 되돌아가서 하늘에 계속 거기서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 할 것이다. 라고 애길 하죠. 천사는 그니까 파송 되었다가 . 천사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천사에는 우리는 뭐 인형처럼 예쁘게 생기고 행복한 천사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죠. 군대. 전투병들입니다. 전투병들.

별 주러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엄청난 파괴를 하죠. 이 지상에 내려와 기지고 바로 천사는 물론 계시를 주는 예쁜 천사도 있고 그런 천사도 있지만 사실 엄정한 의미에서 천사는 에야즈엔겔이라고 하는데 전투병적인 별주러 내려온 천사들이고 어떤 천사는 바로 하늘에서 임무를 받고 내려와서 수행을 하고 되돌아가는 존재

입니다.

되돌아오는 존재인데. 지금 그런 상황예요.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지상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지상에 와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그러는데 이 천사가 마음이 변했어요. 변한 게 뭐냐 면 날아 오르려다가 돌아섰어. 왜냐하면 올라가봐서 있어봤자 편하지가 않을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바라 본 그 현실이라는 거. 지상의 현실이라는 거. 워낙 참담하니까. 돌아가서 나 좋은데 가서 있다고 하더라도 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벤야민이 볼 때는 이 천사는 지금 땅으로 다시 내려앉으려고 한다. 지금 그 애깁니다. 내려 앉으면서 표정이 눈은 크게 떠 있고 입도 통 열려있고 뭔가에 표형이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벤야민이 볼 때는 경하게 표정이다. 뭔가 끔찍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안면에 모든 그런 구멍을 다 열어놓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표정이다. 문도 열려있고 입도 열려있고 그리고 날개는 활짝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 천사의 정체성

문제는 무엇이 그 천사가 보고 있냐 하면 바로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상황이 끊임없이 서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다. 즉 케타스트로프로 변해가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부 파편화 되고 그리고 폐허화되는 풍경이다. 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아닌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해요. 모던이 뭘니까. 끊임없이 뭔가가 생산되고 건축되고 지어지고 그리고 구성되는 시기가 바로 모던.

엄청난 생산력의 시기. 기술력에 의해서 테크놀러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뭐가 생산되고 세워지는 시기인데 그러나 천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뭘니까. 그 세워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역설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뭔가가 즉 뭔가가 건설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현재는 천사가 봤을 때 있는 것들이 전부 폐허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입도 크게 벌리고 경하게 얼굴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천사는 차마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돌아서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 앉으려고 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 무너져 내린 파편들을 다시 조각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다른 식으로 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다시 말하면 뭘니까. 이 케테스트로프로 변해가고 있는 벤야민의 상황을 얘기하면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파멸로 치닫고 있는 물질 생산력의 엄청난 그런 근대적 상황을 벤야민은 폐허로 보고 있고 그러나 그 폐허로 보는 그 한 쪽 시선과 달리 또 하나의 시선은 뭐냐 면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파편화된 조각들을 다시 모아 가지고 소위 다른 어떤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시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폐허로 보는 시선이고 하나는 폐허화 된 것을 다시 재조합 할 것을 리컨스트럭션reconstruction하던지 아니면 리컴퍼지션 decomposition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조형물로 바로 바꾸고자 하는 두 개의 시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천사예요. 어떤 그런 정체성입니다. 천사는 어차피 뭉니까. 구원하러 온 존재예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뭉니까.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천사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그걸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바로 조각나고 있는 파편적 상황들을 구원에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앉으려고 한다. 지상으로 내려앉을 수가 없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왜 내려앉지 못합니까.

#### ▲ 천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폭풍

폭풍이 앞에서 불어오고 있다. 과거라는. 과거로부터. 폭풍이 불어 하도 센 폭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앉으려면 날개를 접어야 되는데 날개를 접을 수가 없다. 폭풍이 하도 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엉거주춤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약간 떠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바로 벤야민의 상황이다. 그렇게 애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은 구원하고싶는데 구원하러 먼 지상으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내려앉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게 바로 진보라고 하는 이름의 폭풍이다. 진보. 프로그래스라고 하는 것. 진보라는 이름의 폭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애길 하게 되면 제가 이 텍스트 읽으면서 정말 해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동안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여러 번 그저 텍스트에 관한 2차 문헌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나 제 질문을 한 번도 풀어주지 못했어요. 다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한 줄은 뭐냐 하면, 이 폭풍의 천국으로부터 불어오고 있다. 폭풍이 분명히 이 과거로부터 불어오고 있는데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폭풍이 천국으로부터 불어오고 있다. 왜 천국이라고 불렀을까. 왜 폭풍이 천국에서 왜 불어올까.

천국이라면 오히려 여기가 아니냐. 하늘이 아니냐. 왜 이 그림 구조 상으로 보게 되면 근데 벤야민에게 폭풍은 과거에서 불어오고 있고 과거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 때문에 이 천사는 땅으로 내려앉지를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그 어떠한 그런 2차 문헌들도 제게 그것을 설명해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는 고투를 거쳐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그 폭풍은 날개를 꿈쩍 달쩍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날개를 접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폭풍은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접을 수 없고 그래서 앞에서 폭풍이 하도 세게 불어오니깐 이 떠

밀려서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죠.

#### ▲ 유토피아를 향해 진보하는 역사

이 밀려나고 있는 이것을 “미래”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래는 뭐냐 벤야민에게 바로 이 미래로 가면 갈수록 바로 그 근대적, 근대라고 하는 상황이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진행을 해 가는데 미래로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계속 케타스트로프가 되는 거다. 뭐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설되는 것이 이게 바로 벤야민이 바라보고 있는 근대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더니라고 하는 시기는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념이 어딴냐면 바로 진보 개념에 있다. 즉,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모던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이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게 진보예요.

즉, 역사는 진보한다. 역사는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토피아를 향해서 진보하게 돼 있다. 바로 미래가 유토피아인데 바로 역사는 진보한다.

#### ▲ 이성과 기술력으로서의 진보의 힘

진보의 의미는 진보의 힘은 두 가지다. 하나는 “ 기술력 “ 이다. 엄청난 테크놀로지 힘이다. 물질적인 양 물질들을 무수하게 생산해내고 있는 그게 바로 엄청난 그런 기술력 생산력 시기가 모더니죠. 그리고 바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물질적으로 행복해지고, 정신적으로 행복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유토피아의 어떤 근본 개념인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그 믿음이 바로 모던의 진보개념 입니다. 즉 기술력에 의해서 물질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또 하나는 “이성” 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그 어떤 이성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바로 철저하게 그 이성이라는 빛에 의지해 가지고 그 이성의 힘으로 바로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에 방향 없이 도달 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이성의 힘과 기술의 힘이 두개가 다같이 엄청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역사의 진보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시기가 모더니고 그래서 모던의 화두는 진보입니다. 프로그래스. 인간은 진보한다. 역사는 진보한다.

#### ▲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파국일 뿐이다

근데 천사가 보기에 천사가 보기에 들여다보니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점점 세계는 폐허화된다. 폐허화되고 있다. 폐허화되고. 그 상황을 지금 애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천사는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이 폐허화된 이런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서 진정한 의미의 유토피아를 재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미래라는 쪽으로 붙어 닫치고 있는 이 진보라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안에 내려앉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만일 역사의 천사가 있다면 폴 클레의 새로운 천사의 모습이 그러하듯 바로 그러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림의 나름대로의 자기 상황과 맞춰서 해석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벤야민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진보이념에 따라서 구성되고 있는 텔로올로지teleology적 목적론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유토피아가 천국이 아니요. 아시겠지만 미래는 과거일 뿐이다.

## ◆2교시: 벤야민의 문명비판

### ▲ 천사가 지상에 내려앉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2차대전이 기다리고 있었구요. 여기에 과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있는데. 그러나 참으로 그렇다면 만일 천국에 과거에 있다고 한다면 천사가 할 일은 너무 분명해져요. 뭐냐 하면 과거를 재건하면 돼요. 이게 바로 복원의 문제인데. 복구의 문제. “restitution”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한데. 뭘 복구한다.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하는 것이 복구한다는 말이죠.

바로 이 복구의 문제인데 바로 천국은 과거에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의미는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먼 과거는 천국의 모티브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티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뭐냐 하면 그 모티브를 끊임없이 뺏니까. 무력화 시키고 있는 진보라는 이름의 폭풍에 의해서 휩쓸리고 있는 또한 상황이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게 똑 같은 상상이예요. 이걸 다시 반복해서 얘길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보라는 그런 과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하나의 운동이 있는 반면 그러나 이것이 천국으로 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다른 폭풍에 의해서 또한 휩쓸려 나아가고 있는 어떤 지점 그게 바로 벤야민에게는 과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천국으로부터 폭풍이 불어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천국은 바로 과거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과거가 그 상태대로서 천국에 모티브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뺏니까 위기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결국 이 천사가 과거 상태로 돌아가서 천국에 모티브로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 그냥 날아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뭐냐 하면 이 거센 바람을 어떻게 뺏니까. 역류할 수 있어야 된다. 역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역류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벤야민의 뺏니까 시츄에이션입니다. 그 시츄에이션을 뭐라고 하나면 내려앉고 싶지만 내려앉지도 못하고 조금씩 조금 씩 미래로 동시에 밀려가고 있다. 이 위기 상황 이게 바로 벤야민이 응시하고 있는 현대적 상황에서

현대적 상황을 구원의 시선으로 응시하면서 그 상황을 구원의 상황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유물론적 역사가의 대단히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세계 파국을 막아보려는 역사가의 임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벤야민의 그 다음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진보의 문제 진보의 문제 도대체 진보라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러한 문제를 애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많이 만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바로 사적 유물론 이 코뮤니즘communism이 시대적인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한 이래 이게 그것이 두 개로 분파되었다.

하나는 소위 그런 스파르타고스당을 중심으로 하는 로자로셈보를 중심으로 하는 로자로셈보로 대표되고 있는 그러한 계통의 좌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소위 쯔쯔알데모그라티 라고 이름에 사회민주주의 라는 이름에 또 하나의 좌파가 있었다. 좌파가 분열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로자로셈보적 어떤 그런 스파르타고스당이 추구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혁명하기 라고 하는 그런 그 혁명론적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과 달리 사회 민주적인 그런 혁명론 자들은 조건이 형성 될 때 까지 기다리기라고 하는 소위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좌파의 어떤 세력 관계에서 결국 승리한 것은 후자쪽이었고 바로 후자 쪽이 끊임없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상황으로 존재했고 그래서 말하자면 개선론입니다. 개선론. 상황이 조금씩 조금 씩 바뀌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혁명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운동 세력이 있었는데, 그 사회주의적인 운동 관계에서 그러나 역사적 현실로 나타났던 것은 바로 그들이 적으로 삼았던 자본주의 세력에서 히틀러가 태어났고, 그들이 자본주의 세력과 대항세력으로 생각했던 그런 소비에트에서는 바로 스탈린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 양자가 그리고 1939년에 서로 불가침조약을 맺음으로 해 가지고 세계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막스가 원래 생각했던 혁명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이게 바로 벤야민이 보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근대적 상황이라고. 그 상황에 상황이 지금 한발 한 발 말하자면 자살 충동에 의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 미래라면 그 미래는 벤야민이 꺾어보지 않았지만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었던 바로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파국의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면 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붙여가는 케타스트로피 catastrophe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떻게 중단시킬 것이냐 이게 바로 그 소위 역사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아래 벤야민이 자기에게 수여하고 있는 역사가로서의 임무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로 그 애깁니다.

### ▲ 함정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나는 시간 관의 혁명

왜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이 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해방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는가 그것을 벤야민은 그들 스스로 처놓은 함정의 올가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길 보면 350페이지 중간쯤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놓은 함정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있다.

그들이 스스로 처놓은 함정의 올가미란 게 뭐냐. 그건 바로 단계론적 혁명론이다. 단계론적 혁명론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의 시간관의 결과인데 그 시간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진보주의적 시간관 이다. 즉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의 목적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어떤 시간관.

이 시간관을 시간관을 자본주의적 그런 근대적 유토피아적 시간관이면서 동시에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틀을 허물려고 했던 사회 민주주의적인 시간관이기도 했다.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의 두 개의 시간관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똑 같은 시간관에 의해서 서로 나중에 합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벤야민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면 바로 사회 민주주의 해방과 혁명을 원하면서도 스스로 처놓은 올가미가 있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시간관이다. 이 시간관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 시간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자면 역사의 천사가 만일 이게 케타스트로피 catastrophe로 다가가고 있는 폭풍을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시간관의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쪽 얘기가 되고 있어요.

### ▲ 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발달 격차로 인한 비극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1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인제 좀 어려운 문젠데 자연 착취하고 인간 착취의 문제를 얘길 하고 있습니다. 벤야민 문명 비판인데요. 문명 비판인데. 벤야민의 벤야민만 아니라 근대성에 대한 비판 특히, 아도르노 비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두 사람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근대성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 혹은 역사성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술의 발달” 과 “인간의 발달” 이 날이 갈수록 벌어진다는 데에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벤야민은 좀 바뀌서 기술의 발전이 기술의 진보가 사회적 진보와 점점 점점 멀어지고 있다. 즉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에 따라서 인간도 발달을 해야 되는데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벤야민 아도르노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점점 동물이 되어간다. 퇴행한다. 이겁니다. 이 편차가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 역사 과정 입니다. 옛날에는 그 별 차이가 없었다. 원시시대에는



돌멩이 던지고 돌도끼로 잡고 그랬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갈수록 그러나 돌도끼가 낫으로 변하고 뿔로 변하고 원자폭탄으로 변하고 컴퓨터로 변했지만 그 사이에 인간의 발달은 전혀 뒤로 가 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격차를 내고 있다. 역사의 모든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격차 안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문제가 훨씬 더 어떤 그런 윤리적 측면이나 뭐 윤리라는 걸 거대 논리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 ▲ 도덕과 윤리의 차이

도덕은 강화될 지 모르지만 윤리는 상실되어 가는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덕과 윤리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말은 많이 하는데 유교는 도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윤리를 가리키죠. 그죠. 도덕과 윤리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유는 마지막에 윤리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발성의 문제입니다.

일종의 윤리나 도덕은 행동 강령인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행동강령에 어떤 수행이 우리로부터 오느냐. 외부로부터 오느냐 그 차이겠죠. 외부로부터 오게 되면 그게 바로 도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폰타나나이티 자발성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래서 도덕은 주어진 당연성이지만, 윤리는 주어진 당연성이 아니죠. 스스로 받아들인 당연성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의 문제죠. 그래서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덕성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라고 얘기하죠.

도리는 가리켜서 생기는 것이 도덕이고 도리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만 그건 자발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리죠. 그래서 모든 사유는 사실 마지막에는 윤리철학으로 사실은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인간은 바로 사유하는 동물이고 행동하는 동물인데 바로 행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념적인 문제하고 막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죠. 인간이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모든 사유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윤리가 되죠. 칸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실천 철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천이란 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실천이 말하자면 이제 바로 주체성의 문제와도 만나는 것이고 주체성을 갖는다는 것과 주체로서 행동하는 윤리적 주체가 된다는 것 사실 동일한 선상에 얘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바로 여기서도 얘기하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 ▲ 차이에서 오는 딜레마

그래서 그 바로 이 문명 기술이 발달하면 기술과 인간의 발달에 편차 이걸 벤야민은 인간

보다는 사회라는 말을 하는데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퇴행한다 이. 이 차이. 이 차이가 바로 라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벤야민이 볼 때 기존의 역사이고 이 역사의 현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천사의 임무인데 바로 여기서 얘기 될 때 바로 왜 그러면 뭇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왜 인간은 퇴행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당연히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기술을 발달 시키려고 했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뭇 때문에 우리가 여기 뭐야. 처음에는 돌로 막 뿔 깨다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무슨 그런 망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생산하게 되고 집을 짓고 뭐 이런 것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술력을 왜 발달 시킵니까. 목적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편해지려는 거죠. 그죠. 행복해지려는 거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 행복의 충동이나 행복의 어떤 그런 필연성이 없었다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바로 그런데 기술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 발달하게 돼 있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불행해진다. 물질적으로 풍요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인간화 되어간다. 아도르노 식으로 얘기하면 점점 동물이 되간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파충류로 변해간다. 파충류는 그렇게 얘길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게 원래 같이 갈려고 했었는데 왜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 됐는가 . 뭐야. 이유가 라고 했을 때 자연의 문제가 나오죠. 자연. 기술 개발이 된다는 게 기술이 발전한다는 게, 자연을 착취하는 행위에 바로 매어져 있다는 사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자연을 착취한다는 사실로 뺏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뭐냐 하면 이건 아도르노 생각이지만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착취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뭍니까. 자연이 그래서 만일 인간이 자기가 잘 살겠다고 바로 자연을 착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자기를 착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딜레마. 이 딜레마가 바로 그 아도르노가 얘기하고 있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의 딜레마입니다. 문명의 딜레마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기술을 발달하면 할수록 기술은 자연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자연을 착취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인간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관계가 되어간다.

#### ▲ 이분화된 인간으로서의 착취현상

이 착취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일어난다. 인간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신체를 신체가 뭍니까. 인간의 자연 부분이죠. 이론 신체를 더 가혹하게 지배하려고 한다. 어떤 이념에 의해서 정신적 이념에 의해서 아름다운 이념에 의해서 끊임없이 얼굴 깎아내고 턱 깎아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뻐진다는 하고 이념에 의해서. 예뻐지려고 한다는 예쁨이라고 하는 건 뭍니까. 이념입니다. 이념. 그 이념을 통해서. 이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재료가 뭍니까. 자기 신체입니다.

이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체를 가혹하게 조련해 나가고 있는 것. 이건 여성들의 어떤 미의식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 하려고 한다는 이름아래 끊임없이 신체를 가혹하게 조련 시키고 그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 같은 것. 신체의 아름다움을 뒤편 컨스트럭션 한다는 이름아래 그 발레서양발레 보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굳이 이렇게 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뭣 때문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폭력이 인간 신체에 가해 집니까. 그러한 것들. 신체를 조련하는 방식. 이게 바로. 예술 속에 끊임없이 들어있고 스포츠. 특히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도. 왜 100m를 10초 안에 뛰어야 되고 그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궁극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를 이분화시켜서 이분화된 주도 세력이 된 부분이 나의 부분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힘 행사하기.

### ◆3교시: 푸리에와 블랑키의 혁명론

#### ▲ 푸리에와 블랑키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바로 벤야민이 애길 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 착취와 서로 착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벤야민이 혁명론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푸리에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블랑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보면 샤를 푸리에 대해서 애길 하고 있어요. 샤를 푸리에. 그래서 다행히 번역되어 온 책이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사람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엉뚱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쓴 책 중에 뭐 “사랑으로 만드는 제국 “인가 뭐 이런 책이 책 세상에서 나온 얇은 책 있죠. 여러분 문고판처럼 생긴 것얇은 책 인데. 거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거길 보면 이 사람은 사랑의 제국은 인간의 세상을 사랑의 그런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여성과 남성의 그런 관계에 무슨 특히 에로스적의 제국을 만들려고 사랑을 맘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몽상주의 자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세상을 애길 했습니다.

#### ▲ 인류가 지향해야 될 푸리에의 환타지

다시 말하자면 벤야민이 이 푸리에를 통해서 굉장히 푸리에에 여기 보면 우리 351페이지 중간 쯤에 보게 되면 이런 푸리에가 나오죠.

바로 이러한 실증주의적 견해 다시 말하자면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실증주의적이라고 하면 이러한 실증주의적 견해와 비교해 본다면 자주 조소의 대상이 되어 온 푸리에 식의 환상은 놀랍게도 건강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애길 하고있죠. 그래서 푸리에에는 동물과 우리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보여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천국 풍경이 나오죠. 호수도 있고 온갖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동물들과 뭐 같이 놀고 자연상태로 되돌아간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푸리에라는 사람이 상상하고 있었던 실제로 건설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에로스라고 하는 것. 하는 것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계였는데 바로 거기에 보면

푸리에에 따르면 사회적 노동이 효과적으로 짜여 진다면 중국적으로는 네 개의 달이 지구의 밤을 대낮같이 밝힐 것이고, 남북극의 빙하가 녹을 것이며 바닷물은 더 이상 짜지 않을 것이고 또 맹수들은 사람들이 명령에 순종하게끔 되어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환타지이지만 그래도 당대에 이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는 계몽주의 세상이었고 실증주의적 과학주의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 사람을 두고 정신병자라고 막 사람들이 놀리고 그리고 지탄하고 그랬었는데 벤야민이 푸리에를 다시 받아들이면서 푸리에의 환상은 엉뚱하긴 하지만 사실은 인류가 지향해야 될 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모델로 삼습니다. 비판적으로 모델로 삼는 것이죠. 엉뚱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공상적으로만 이해되고 공상적으로만 주장되었는데 바로 다시 말하자면 유물론적 시각이 없었다는 점이 바로 푸리에의 문제점이었지만 그러나 푸리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타지 자체는 사실은 인간이 추구하려고 했었고 인간이 지금도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애길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바로 벤야민이 그걸 그러기 위해서 푸리에에는 환상이 실천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지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나 바로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자연착취가 자연착취와 끈어지는 일 그래서 자연과 자연을 바로 저기 뭐야 기반으로 해서 문명을 바로 건설하는 일 이게 바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애길 하고 이 부분은 사실 막스의 자연론에서 자연론에 대한 대답 자연론에 대한 대답.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젠데 딱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벤야민이 바로 그런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 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의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샤를 푸리에고, 이 샤를 푸리에를 통해서 벤야민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면 자연착취가 더 이상 아닌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될 때에만 진정한 진보와 그런 해방의 그런 관계가 역사 속에서 설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고 12번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블랑키 얘기가 나옵니다.

#### ▲ 마지막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블랑키라고 하는 블랑키 그래서 바로 벤야민이 이렇게 애길하죠.

역사적 인식의 주체는 투쟁하는 피지배 계급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막스에게 있어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계급이나 하면 지금은 억압 받지만 마지막으로 억압 받는 계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억압 받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억압 받고 있는 계급이다. 뭘니까. 지금 억압 받고 있는 계급이지만 그 억압은 더 이상 후대로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계급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에서 끊어내려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급이었다. 이겁니다. 이미 이 얘기는 뭘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는 거쳐서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맑스에게는 지금 당대 이 시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 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제어레이션 generation 을거치고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꾸어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맑스에게 원래 피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한 세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으로 패배하는 계급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복수하는 계급이었다. 복수라는 개념을 우리 언어 행위 속에서 이 많이 그렇게 배우죠. 절대 복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고 사랑하거라 깨어나거라 우린 배우지만 바로 벤야민은 과감하게 이 복수라는 말 혹은 증오라는 말 분노라는 말 이런 말을 하나의 역사적 에너지로 동원을 하는 데요.

그러한 말들이 뭐냐 하면 바로 블랑키의 혁명론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애깁니다. 스파르타고스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났다가 제가 말씀 드렸어요. 사회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폐퇴당한 어떤 운동이 있었다. 그죠.

#### ▲ 마지막 세대가 되려는 증오와 희생정신

30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들은 지난 세기를 규합하고 흔들어 놓았던 바로 블랑키와 같은 목소리와 이름을 말살하는데 성공했다.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나중에 바로 그렇게 하면서 쪽 내려가면 바로 노동계급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증오와 희생 정신을 기억하는데 있다.

바로 그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진정으로 범했던 죄 중에 하나는 뭐냐 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내재되어 있는 바로 이 혁명의 에너지 다시 말하자면 증오와 희생정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아까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말하자면 복수하면서 피지배 계급의 마지막 계급. 마지막 세대가 되려고 하는 희생정신 두 번 다시 이 피지배 계급을 다음 세대는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 역사적 에너지 계급적 에너지 이 에너지를 무력화 시켰다는 거죠. 사회민주주의가 그리고 블랑키가 주장했던 혁명론도 거기에 있어요. 블랑키는 일종의 직업혁명꾼이었어요.

당대에 말하자면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파업전문가 이런 사람들 있죠. 몰래 들어가지고 어떤 공장을 우리 옛날에 60년대 위장해서 들어가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랬죠. 위장해서 들어가서 파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운동권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예요. 노

동운동의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레디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 일종에 테러를 가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테러리스트. 조직적 테러리스트. 그래서 스스로 직업적 혁명가다.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 블랑키인데. 블랑키의 이론이 뭐 단순합니다. 혁명은 기다리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히어 앤 나우. 이 자리에서 바로 있어야 하는 것. 그게 혁명이라고 애길 했고 바로 이 블랑키를 바로 말살시키면서 바로 혁명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된 것이 아까 말씀 드렸던 사회 민주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하죠. 블랑키가 혁명은 이 자리에서 당장 있어야 된다고 했던 혁명론을 뺐을 때 그가 믿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증오의 힘과 분노의 힘과 그리고 희생의 힘이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스의 혁명론이었고 바로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블랑키 혁명론을 레디칼리즘 이라는 이름으로 폐퇴시키고 그리고 소위 연속적 연속적 그런 혁명론을 그 뺐을 때 그 블랑키를 폐퇴 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주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무력화 시켰다는 거죠. 무력화 시켰다는 것. 순응적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 ▲ 프리오와 블랑키적 사유와 맺어졌다는 것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 벤야민이 애길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장 12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벤야민 사유의 바로 프리오와 블랑키적 사유와 맺어졌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론 자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환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실지적인 그런 그 에너지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에서 발견되고 있는 혁명의 에너지를 가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만나면 두 개가 만나면 바로 맑스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혁명의 의미. 마지막 피지배 계급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자기 정체성 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벤야민의 일종의 혁명론의 두 축입니다.

바로 이 블랑키와 푸리에를 빠사쥬 이라바이카 빠사쥬베아로크 그 파사쥬 앤 프로젝트에 거기에 들어가면 크게 장으로 나누어서 푸리에와 블랑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그러나 비판적으로 접근하죠. 비판적으로. 전면적으로 옳았다 이게 아니고 바로 자기 식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 두 개 측면이 벤야민에 논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받아 들이 시구요.

#### ▲ “to go forward”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게 되면 시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보란 그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벤야민은 진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진보”에는요. 우리가 진보라고 그러지만 바로 원래 진보는 “프로그래스”라고 애길 하죠. 그러나 벤야민의 소위 근대성이 추구하고 있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 벤야민한테는 진보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뭐냐 하면 “to go forward” 에요. 앞으로 그냥 가

는 것 진보와 진보한다는 것은 뭔가 점점 나아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아지는 걸 의미하죠.

근데 그냥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뭘니까. 나아지는 게 없이 시간만 그냥 흐른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나누는 관점이 뭐냐. 이게 벤야민에게 바로 사건입니다. 사건. 그니까 시간이 흐르는 하는 것이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그 시간 흐른다. 사건에서 사건이 일어나느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사건이라는 것 그냥 무슨 뭐 엑시던트accident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원래 추구했던 어떤 진보의 이념을 이제 가동시키는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진보고 그 사건이 안 일어난 채 그냥 앞으로만 계속 가면 그것은 바로 무슨 말로 얘길 해야 합니까. 어떻게 얘길 해야 되는 진보라는 말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영어로 얘기하면 - to go forward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 그냥 앞으로 가는 행위다 라고 얘기하죠.

#### ▲ 모던의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

벤야민이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나누고 있는 중요한 그런 관점이 뭐냐 하면 시간이라고 시간을 뭘로 볼 것이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앞으로만 흘러가는 시간을 벤야민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 하나 면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호모지니어스homogeneous하고 앰프티empty한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건 뭘니까. 무슨 사건은 차이가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거죠. 동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 같은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그걸 바로 동질적이라 하고 아무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똑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 뭘니까. 텅 비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 예요. 그래서 벤야민은 바로 이 호모지니어스 하고 그 다음에 앰프티 한 그런 시간을 그냥 앞으로만 가는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시브 이진 진보적 시간이 아니 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근대적 상황이 끊임없이 앞으로 빠르게 빠르게 그리고 근대성의 특성을 속도인데요. 나중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무지무지한 가속도로 빠르게 나가죠. 그니까 근대성의 특성은 두 개입니다.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무지하게 빠른 거고요. 우리가 아방가르드 운동 예술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상품. 하루만 자고 나면 옛날 어저께 있었던 게 폐기 당하고 새로 나오는 동시에 뭘니까. 무지무지한 확장입니다.

무지무지한 확장.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한편으론 양적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그것이 바로 이게 늘어나는 현상이 놀라운 정도에 가속도를 가지고 빠르게 진행되는 이게 근대성의 운동 법칙이에요. 우린 보면 알잖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일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옷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식물 자라듯이 부권하고 육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냥 뭐 일정한 시간 내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빠른 가속도로 움직여나가고 이게 바로 그것인데 근대성인데 현대라고 하는 상황이 겉보기에는 그 육성력과 확장력과 속도에 의해서 엄청난 진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벤야민이 볼 때는 호모지니어스하다. 앤프티하다. 앤프티하다. 맨날 똑 같은 게 재반복 된다. 그래서 일종의 유행현상과 똑같다.

#### ▲ 모드의 논리

유행현상이 뭐니까. 실제로 무슨 새로운 게 태어나는 것. 유행의 목적은 뭐죠. 유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니까. 새로움 이에요. 유행은 모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행이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냅니까. 만들어 냅니까. 천만에요. 반복뿐입니다. 그죠. 옛날에 입던 것을 다시 새로운 걸로 끄집어들이는 행위. 그리고 동시에 뭐니까. 지금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옛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 그게 모드죠. 그게 모드의 논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자들 치마 변해 가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짧아졌다가 어느날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무지하게 빠르게 항상 새로 와 지는 거 같지만 실제로 보면 뭐니까. 치마 한 장은 계속 남아있는 예컨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그래서 겉보기에는 무지무지하게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 보게 되면 호모지니어스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게 모드 현상이거든요.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상징 그것은 보들레르에게도 그랬지만 벤야민에게 모드입니다.

물론 모드에 대해서도 양가성을 지니고 있어요. 모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모드처럼 옛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 역사성에 없었다. 낡은 것을 그토록 새로운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모드 이외에 있지 않았다. 라고 얘길 하는데 이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모드에 대해서도 벤야민이 이중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인데 어쨌든 간에 바로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앞으로 갈 뿐이다.

진보 아니다. 이거 라고 하는 것이죠. 진보란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와야 됩니다. 현대성의 궁극적 목표가 뭐니까.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옛날 없었던 것을 끌어내는 것이 그것인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현대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시간의 문제를 현대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진보의 시간과 그 다음에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